

2016년 5월

화학경제연구원
컨설팅팀발간일: 2016년 5월
분량: 26페이지
가격: 22만원

화학경제연구원

Phone: +822 6124-6660

Fax: +822 6124-6669

consulting@chemlocus.com

바이오시밀러, R&D인가 유통경쟁력인가!

국내 제약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투자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 화학기업들의 투자나 관심은 미미한 편이다.

화학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을 경우 타겟해야 하는 기업과 경쟁하게 될 기업들을 분석해 보았다.

셀트리온제약 vs. 삼성바이오에피스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셀트리온제약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경쟁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렘시마'는 한국, 유럽, 일본에 출시됐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베네팔리'는 올해부터 유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우직한 셀트리온과 발빠른 삼성바이오

외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연구개발과 상품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각국에서 임상 절차에 집중하며 제품의 안정성을 높인 결과 '트록시마'가 세계최초 바이오시밀러 혈액암치료제로 올해 국내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후발주자로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에서 단기간내 승인을 얻어내는 것에 주력했다. 각 절차별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전략을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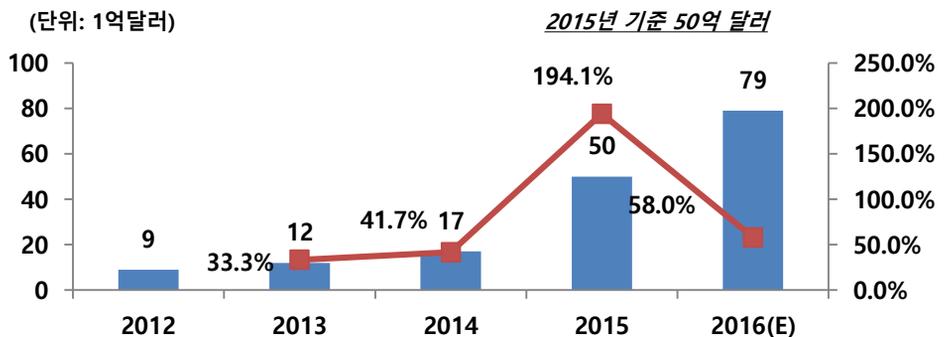
성공한 바이오벤처 기업 Amgen과 유통이 강한 Pfizer

화이자사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기업을 인수하거나(호스피라), 바이오시밀러를 유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간다. 이는 기존의 화이자 제품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됨에 따라 수익을 보존하기 위한 시도로 파악된다.

암젠은 연구개발에서부터 시작한 기업이기에 때문에 핵심연구인력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복이 적은 기업(Abgenix)을 인수하거나 벤처기업과 제휴하여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성장한다.

셀트리온제약, 삼성바이오에피스, 암젠, 화이자를 분석하여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투자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규모 현황 (2015)>



Source) CMRI, 바이오시밀러 기업 경쟁력 분석(4개사)